

# COVID-19 와 독감의 차이점에 대하여

이 겨울은 COVID-19 와 독감이 동시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어느쪽도 각자가 조심하면서 예방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각 감염증의 차이점과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‘다섯가지 장면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

## ◆COVID-19 와 독감의 차이점

	COVID-19	독감
증상의 유무	발열에 더해서 미각장애, 취각장애가 생길 때도 있음.	백신 접종에 유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자주 고열이 남.
잠복기간	1~14 일(평균 5.6 일)	1~2 일
무증상감염	최대 약 60% 무증상 환자라도 바이러스 보유량이 많고 감염력이 세다.	10% 무증상 환자는 바이러스 보유량이 적다.
바이러스 배출기간	바이러스 유전자는 장기간 검출되지만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은 10 일 이내.	5~10 일(거의 5~6 일)
바이러스 배출 피크	발증일	발병후 2~3 일
중상도	중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	거의 경증, 중증 정도.
백신	개발중*	사용가능하지만 계절마다 유효성이 다르다.

(‘일반사단법인 일본감염증학회 제언 이 겨울의 독감과 COVID-19 에 대비하여’에서)

\*2020 년 10 월 현재

## ◆COVID-19 감염리스크가 높아지는 ‘5 가지 장면’

(‘제 12 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분과회’에서)

- 1. 음주를 동반하는 회식 등 :**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. 또 청각이 둔감해져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술잔 돌리기, 젓가락 공동사용 등으로도 리스크가 높아집니다.
- 2. 다수 인원이나 장시간의 회식:** 5 명 이상으로의 회식은 소리가 커지고 큰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비말이 튀기 쉽습니다.
- 3. 마스크 없이 대화:** 비말감염 리스크가 높아집니다.
- 4.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:** 장시간 밀접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염리스크가 높아집니다.
- 5. 거처의 변경:** 직장 휴게시간 등 거처가 바뀔 때에 긴장감이 풀리거나 환경변화 때문에 감염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이어서

**‘밀접, 밀집, 밀폐’의 회피, 마스크 착용, 환기(24 시간 환기나 2 단계 환기\* 등), 손씻기, 손가락 소독** 등 감염예방을 명심하여 새봄을 맞이합시다!

\*안 쓰는 방의 창을 열어 공기를 들이는 동시에 사용중인 방의 문을 열어 체류되었던 공기를 나가게 하는 환기법

문의처 : 벧푸시 건강만들기 추진과 TEL:0977-21-1117